

보도자료



보도 희망일	즉시
문의	기획처 홍보팀 880-5054, 9072 snupr2@snu.ac.kr 행사진행: 총무과 등

배포일: 2023. 8. 29.(화)

서울대, 제77회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서울대학교(총장 유흥림)는 제77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2023년 8월 29일(화) 오전 10시30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978명, 석사 1,200명, 박사 656명 총 2,834명에게 각각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한다.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 그동안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위수여식이 진행된 바 있으며,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것은 2022년 8월(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 이후 세번째이다.
- 유흥림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낯선 시간은 앞으로 학교 밖에서 만날 다양한 기회와 위기의 순간에 지혜와 용기를 불러일으킬 소중한 자산”이라며 “서울대학교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미래를 헤쳐나가는 힘으로 키울 것”을 강조했다. 이어 유흥림 총장은 “두려움은 마음 한쪽에 접어두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공동체와 협력해 이뤄내길 바란다”며 “우리나라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를 위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위수여식사: 별첨1>

□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학문의 흐름인 통섭을 제기한 생태학의 선구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에코과학부)가 축사 연사로 초청되어 지성인의 양심과 공정을 바탕으로 통섭형 인재, 그리고 공정하고 따뜻한 인재로 성장해 갈 것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학위수여식사: 별첨3>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는 다양한 봉사·공헌활동 참여와 문화적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두빈스키 니나(DUBINSKI NINA, 독일, 정치외교학부)씨가 선정되었다.

□ 주요 식순

-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수여식사(총장),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 졸업생 대표 인사, 축사(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 학위수여, 상장 수여 등

【첨부1】 제77회 후기 학위수여식사(총장)

자랑스러운 우리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 여러분! 영광스러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오신 가족 친지 여러분, 아낌없는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직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1일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2월의 학위수여식, 3월 입학식, 5월 서울대 축제, 3월과 5월 두 차례 열린 학생 여러분과의 직접적인 소통행사인 ‘온 더 라운지’ 등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가깝게 만나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63주년 4·19 혁명 희생자 추모행사, 6월 현충일 전몰동문추모비 참배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자랑스러운 동문들의 뜻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고 소통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고 귀한 우리나라의 인재들입니다. 특히 오늘 졸업을 맞이한 여러분이 걸어온 과정은 특별합니다. 짧지 않았던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러분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이겨내, 마침내 졸업식장에 들어섰습니다. 많이 애쓰셨고 그만큼 자랑스럽습니다. 돌아보면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이 경험했던 낯선 시간은 앞으로 학교 밖에서 만날 다양한 기회와 위기의 순간에 지혜와 용기를 불러일으킬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인류 문명의 대전환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식 자체를 넘어서 바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대인관계의 역량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복합적 위기와 불확실성은 개인의 지식과 능력만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수의 지혜를 모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목표에 이르는 방법을 찾아내고 성취해야 하는 일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겪는 난제에 창의력과 도전 의지로 맞서, 모두가 소통하고 힘을 합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서울대학교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미래를 헤쳐나가는 힘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이 사회 속에서, 나아가 인류 공동체

와 지구 생태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를 넘어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sus)’, 즉 ‘공생하는 인간’ 개념을 주창하신 최재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공생’과 ‘협동’이야말로 성장과 발전을 경험한 모든 종(種)이 선택해 온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 병리현상과 기후위기는 우리의 공생 노력이 부족한 탓에 일어난 사건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개인의 수월성을 공생과 상생을 실현하는 데 발휘해야 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개인의 탁월함이 확장될 수 있고, 상생의 과정은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토대를 일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포용성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타인에 대한 공감’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LnL은 이러한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갖춘 리더를 길러내기 위한 혁신적인 도전입니다.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이 1년 이상 LnL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어느덧 졸업생이 되어 돌아보는 시간 속에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문득 다가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서울대학교에서 나이, 취향, 환경 등 모든 것이 다른 여러 구성원과 협력하며 배우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가 성찰하고 자신의 현재를 인정하며 부족함을 깨닫고 채우는 성장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험한 함께함과 거듭남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한층 선명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 한쪽에 접어두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공동체와 협력해 이루어 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졸업생으로서 우리나라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도 계속하여 시대에 맞는 비전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시도하는 혁신과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힘이 들고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교를 떠올리며 힘을 얻으십시오. 오늘 찍은 사진 속 여러분의 의젓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이십 년 후, 삼십 년 후에도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첨부2】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사랑하는 후배 졸업생 여러분, 영예로운 학사와 석사·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자랑스러운 서울대 총동창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44만 서울대 동문을 대표해 환영합니다.

졸업생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가르치고 길러주신 학부모님,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홍립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오늘 학교를 떠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대학 시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해 줍니다.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연구실에서 얻은 지식들, 이것은 학위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중한 친구들과 나눴던 우정, 동아리와 학회 활동으로 불태운 열정처럼 형태는 없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해줄 추억도 있습니다.

보통은 지식과 추억, 두 가지만 얻어도 충실한 대학생활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서울대생이라면 한 가지 더 가슴에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마음’ 입니다.

서울대 입학 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이었을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왔으니, 서울대 입학은 개인의 성취였겠지요. 그러나 졸업도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해낸 것일까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누린 것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졸업생은 단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복을 받은 사람’ 이고, 그 복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 점을 일찍 깨닫고 사회 기여를 결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먼 훗날 성공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겠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성공을 앞에 놓고, 나눔은 후순위로 미룹니다. 그렇지만 큰 성공을 거두고, 사회 공헌도 잘하는 사람은 ‘나누면서 성공할 수 있다’ 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기약 없는 먼 미래의 사회 공헌을 다짐하기보다, 작은 일이라도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을 당장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은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그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다섯 가지를 받았다면, 열 가지를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행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로 인해 덕을 본 것은 너 자신이다’. 오늘날에도 통하는 고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뛰어들 세상이 전쟁과 분열, 기후변화, 질병으로 혼란을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죽하면 각자도생이 새로운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할까요. 그러나 하나 잘 사는 데 치중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서울대인에게 바라는 모습도 아니고, 서울대가 여러분을 가르친 목적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내되, 인생 전체는 베풀고 나누는 큰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해줄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를 찾는다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앞서 많은 동문 선배들이 사회 공헌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공부했던 건물과 여러분이 받았던 장학금 중에도 동문 선배들의 기부로 가능한 것이 많았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총동창회 또한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비롯해서 기업인 선배들로 이뤄진 관악경제인회, 사회공헌위원회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44만 동문들이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첨부3】 축사(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여러분 모두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는 사뭇 섭섭한 말이 있지요? 성적순이면 좋겠는데, 그렇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서울대 졸업식 축사 자격만큼은 분명히 성적순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1970년대 ‘제2지망’ 이라는 참으로 치졸하고 알곳은 입시 제도 덕택에 이 대학에 기어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수업 빼먹기를 밥 먹듯 하며 대학 4년을 거의 허송생활 했습니다. 4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삶의 마지막 도피처가 유학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 짐작하신 대로, 성적이었습니다.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외국 대학에서 장학금은 고사하고 입학 허가라도 받으려면 평점이 적어도 3.0은 넘어야 하는데, 그 당시 제 성적표에는 D와 F가 즐비했습니다.

단 한 대학만이라도 입학할 허가해 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마음으로 무려 28 대학에 눈물겨운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하느님이 보우하사”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그중 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미국 대학에서 화려하게 ‘학점 세탁’ 에 성공하며 그야말로 개과천선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니 저 같은 사람에게도 오늘 같은, 영광스러운 기회가 찾아오네요. 살아보니 인생 껍질 같군요.

얼마 전 어느 신문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와서 참으로 민망하게도 제 인생을 훑어 주더군요. 말 그대로 “물 건너갔다” 던 동강댐 계획에 대해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 호소하는 신문 기고문을 써서 댐 건설을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백지화하는 데 성공하며, 줄지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되어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4대강 사업에 항거하다 온갖 불공정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쩌다 호주제 폐지 운동에 가담해 헌법재판소까지 불려가 과학자의 의견을 변론했는데, 한 달 만에 헌법 위헌 판정이 내려지며 저는 남성으로는 최초로 ‘올해의 여성운동상’ 을 수상했습니다. 2012년에는 ‘제돌이야생방류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제돌이와 그의 친구 돌고래들을 무사히 고향 제주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엄청난 반대에 휘말렸지만, 이는 결국 우리가 잡아 가뒀던 동물을 우리 손으로 정중하게 야생으로 돌려보낸, 우

리 역사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며 동물복지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국무총리와 함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K-방역이 세계의 칭송을 얻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많은 사회 활동을 하느라 줄곧 학교 밖으로만 나돌았을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교수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본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맞으며 이제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분야가 된 생태학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려고 국내 최초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에코과학부’를 설립하기 위해 포근한 모교의 품을 떠나는 용단을 내렸고, 노무현 정부를 설득해 동양 최대 규모의 생태학 연구소인 국립생태원을 건립하고 초대 원장으로 봉사했습니다.

한편, 동물의 행동과 생태에 관한 기초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은 덕에 저는 2019년 동물행동학 백과사전(Encyclopedia of Animal Behavior) 출간 사업의 Editor-in-chief로 추대되어 전세계 동료 연구자 600여 명을 이끌고 거의 3000페이지에 달하는 백과사전을 펴냈습니다. 비록 작은 과학 분야지만 동료 학자들로부터 리더로 추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가슴 뿌듯합니다.

저는 왜 이 모든 걸 다 하느라 애쓰고 살았을까요? 연구와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왜 온갖 다양한 사회적 부름에 종종 제 목까지 내걸고 참여했을까요? 저는 사실 태생적으로 비겁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저는 우선 숨었습니다. 솔직히 다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놈의 얼어 죽을 양심 때문에 결국 나서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아주 작지만 끝내 꺼지지 않는 촛불 같은 그놈의 양심을 어찌지 못해 늘 결국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후배님들에게 제 마음 속에 타고 있는 작은 양심의 촛불을 하나씩 나눠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래전 제가 이곳에서 교수로 지내던 어느 해, 의예과 학생들에게 일반생물학을 가

르치며 겪은 일화를 소개하렵니다. 숙제 검사를 하다 상당수의 학생이 누군가의 리포트를 그대로 베낀 걸 발견했습니다. 흔치 않은 타이포(typo)가 반복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모두 여덟 명의 학생을 찾아내어 개별 면담하며 다음과 같은 다짐을 받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능력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면 가진 것도 없고 머리에 든 것도 적은 저 바깥의 많은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 앞으로 의사가 되어,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로지 정도만을 견졌다고 나와 약속하면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 저는 그 여덟 명의 의예과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정도만을 견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똑같은 당부를 드리려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러분이 공정하게 살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과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저 바깥에 있는, 가진 것도 변변히 없고 머리에 든 것도 많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닙니다. 재력, 권력, 매력을 가진 자는 함부로 공정을 말하면 안 됩니다. 가진 자들은 별 생각없이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고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저 공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비로소 이 세상이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공평이 양심을 만나면 비로소 공정이 됩니다. 양심이 공평을 공정으로 승화시킵니다.

저는 모름지기 서울대인이라면 누구나 치졸한 공평이 아니라 고결한 공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입으로는 번드레하게 공정을 말하지만 너무나 자주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서는 종종 무감각한,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밀어붙이는 불공정한 공평이 아니라, 속 깊고 따뜻한 공정이 우리 사회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확하게 1년 전 이 자리에서 수학자 허준이 교수님은 인간이 80년을 건강하게 산

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약 3분의 1을 살았다고 계산하셨는데, 제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은 충만하게 100세 시대를 살게 될 첫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기껏해야 인생의 4분의 1을 산 셈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 길더군요. 앞으로 살아갈 4분의 3 인생 동안, 여러분 각자에게 반짝하며 빛날 기회가 적어도 한두 차례는 올 겁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한 말씀 하나 드리렵니다.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여러분은 적어도 직업을 대여섯 번 갈아타며 살 것이랍니다. 당연하겠지요. 머지않은 미래에 정년 제도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것이고, 그리되면 일하고 사는 인생, 즉 노동 인생이 자칫하면 70년이나 될 텐데 어떻게 한 직장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수재들입니다. ‘대서울대학교’의 졸업장을 거머쥐셨습니다. 취업전선에서 완벽하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서울대 졸업장이 두 번째, 세 번째 직장을 얻을 때에도, 70대에 할 일을 찾을 때에도 지금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도 쉽 없이 배우고, 일하고, 또 배우고 일해야 합니다. ‘융합의 세기’, 21세기를 살아내려면 ‘통섭형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평생 공부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리며 이제부터 살아갈 4분의 3 인생도 지금처럼 치열하게, 그러나 사뭇 겸허하고 따뜻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변은 온통 허덕이는데 혼자만 다 거머쥐면 과연 행복할까요? 농민 사상가 고 전우익 선생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혼자만 잘 살든 무슨 재민겨?” 제가 평생토록 관찰한 자연에도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더군요.” ‘대서울대’ 졸업생으로서 부디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서울대학교는 그런 리더를 길러내는 대학이어야 합니다. 오로지 정도만을 걷는, 공정하고 따뜻한 리더가 되십시오. 서울대인은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